



“완주·전주 통합은 없다” 완주군의회는 2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맞춰 의원 10명이 삭발을 감행하며 강경하게 완주·전주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사진=완주군의회>

도지사 ‘완주군민과의 대화’ 끝내 무산

김관영지사, 완주군 방문
통합 반대 주민 강력 반발
도지사 차량 막는 등 아수라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5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유희태 군수로부터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군민과의 대화’는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완주군청에 도착했지만, 군청 앞에서는 완주군의회와 군민들이 주최한 통합 반대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현장에는 ‘완주·전주 통합 결사반대’, ‘김관영 물러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곳곳에 세워졌고, 군의원 10명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도지사의 통합 추진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군정 업무보고에서 유 군수는 완주군의 시(市) 승격 필요성과 수소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을 언급하며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

“군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 향후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완주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통합 여부는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정치적 논리보다는 군에 실익이 되는 경제 논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찬반 양측 군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충분히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며 “군민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는 군수의 의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청 옆 문예회관에서 예정됐던 군민과의 대화는 통합 반대 군민들의 반발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격앙된 군민들이 김 지사의 이동을 막아섰고, 일각에서는 도지사 측 경로를 막는 과정에서 군청 직원을 위협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에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통합 결정은 군민의 몫”이라며 “찬반 입장을 가진 주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론화를 이어가

야 한다. 도지사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를 거부하기보다 도지사에게 요구사항을 민주적 절차로 전달해 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도 “현재 군의회가 통합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으며, 군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면 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나온 김 지사는 군청 복도에서 집결한 반대 군민들에게 가로막혀 한동안 발이 묶였다. 군민, 군의원, 공무원 등이 얹히며 복도는 한때 아수라장이 됐고, 군민들은 도지사 차량 앞까지 가로막으며 강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경찰력이 투입돼 상황이 정리됐다. 한편 유의식 완주군의회장은 “김 지사가 일부 군민의 찬성 건의서를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며 “주민 설득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송미령 장관 유임…당 안팎 불만 목소리 고조

민주당 안팎으로 철회 요구
계엄·농업민생 4법 반대 전적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이후에 여야에서 유임철회 내지는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농수산위 관계자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송 장관이 농업민생 4법 등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반대해온 사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민통합과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는 점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송 장관이 진짜로 재임 기간 중 성과를 낸 유능한 인사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무너지고 있는 농업 농민 회생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진짜 내란세력이다”면서 “계엄 이후

에도 송 장관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무너지는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민생 4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를 통과시켰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역시 거부권이 행사됐다. 민주당이 추진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으로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과 재해 걱정없이 مطمئن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우리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였다. 민주당이 이 농업민생 4법을 추진한 배경은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다יש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약속 위반과 정책 실패에 따른 농정파탄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

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쌀 한가마에 20만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2024년 수확기 산지쌀값은 최종 18만4,700원으로 확정되었고 정부는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사전적 수급 조절로 쌀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는 약속했지만 목표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쌀값 안정에도 실패했었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불만을 강력히 토로할 경우, 어렵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골적으로 송 장관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용두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에서 “송 장관의 유임을 철회하고 농정의 기본 틀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서울=김영목 기자

건설산업 위기 속 전북도 수주활동 ‘성과’

올해 1분기 수주액 7,681억 원
상반기 공공공사발주 70% 돌파

전북특별자치도가 건설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수주 확대 전략에 힘입어 2025년 1분기 건설수주와 지역업체 활용에서 성과를 거뒀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1분기 도내 건설수주액이 7,68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8.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호남권 전체 수주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도는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 기반 조성 △지역업체 보호 및 우대제도 확산 △수주 지원 활동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1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상반기 공공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를 적극 독려한 결과, 6월 현재 총 3조 3,727억 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돼 목표 발주율(65%)을 웃도는 70.6%를 달성했다. 현장 중심 수주 활동도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도내 공사현장 및 기업 본사를 방문하는 ‘현장 세일즈’를 56회 실시하며, 실질적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새만금 투자기업 공장 건설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업체 시공 실적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최대 5%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를 도입해, 지역업체 수주를 실질적으로 견인했다.

그 결과, 2024년 새만금국가산단 내 공장 건설에서 도내 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803억 원으로, 수주 비율이 전년 대비 59.5%에서 81.7%로 대폭 상승했다. 수주 건수 기준으로도 11건 중 2건만 도외업체가 맡을 정도로 지역업체 주도 현상이 확대됐다. 민간 공동주택 건설시장 내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업체 활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피어났다 남원

고향사랑기부제로 남원을 응원해주세요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개인)의 주소지가 남원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남원에 기부가능
-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기부액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액 30%이내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품, 남원사랑상품권 등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카메라 켜서 QR찍고!
QR코드 스캔하기
회원가입하고 남원시에 기부하기 누르고
기부액 입력하고 답례품 선택!
대면기부
농협창구 방문 신청(전국 어디서나)

2025년 남원시 고향사랑 기금사업

· 남원 미래인재 해외 영어 캠프
· 남원 인재학당 채움사업
(책상의자 세트, 셔틀버스 구입)

문의 남원시 대외협력팀 063-620-6097

남원시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전북자치도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

정부 ‘비상경제점검 TF’ 대응 체계 마련 민생경제 안정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출범시키고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25일 도청 2층 예산심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속한 재정집행, 소비자물가와 고용률, 지역사랑상품권 집행률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월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출범시켜 전국 단위의 경제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며,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했다. 전북도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은 도청 2

층 예산심의실에 설치되며, 기획조정실장이 상황실장을 맡고 예산과·정책기획관·일자리민생경제과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해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역경제 주요 지표 모니터링(소비자물가, 고용률, 지역사랑상품권 집행률 등) △국가 비상경제점검 TF 논의사항 및 시책 공유 △시군의 애로사항 수렴 및 중앙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안전 발생 시 수시로 열리며,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전영평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출범시키고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의회, 추경 10억 삭감 의결

“민생 안정·필수경비 집중”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25일 제4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10억원 가량 감액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24일 진행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 활동 지원 2,000만원(전액 또는 일부 삭감)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정비공사 4억원(전액)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 6,000만원(일부) △투명PET 선별시설 개선사업 1억원(전액)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사업 1억원(전액) 등 모두 9개 사업에 10억8,050

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권고 사항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범시민 다짐 결의대회 사업’의 경우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홍보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민참여형 가로정원 유지 관리 사업’의 경우 4,000만원 전액 삭감분을 △음악마스터링 인건비 1,500만원 등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 보조금 축소와 물가 상승,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필수경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연구원 “전북거점 국립과학관 조성 시급”

기술·문화 사각지대 우려 정부 지원 절실

전북자치도의 광역경제생활권 완성을 위해서는 도민이 손쉽게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북거점 국립과학관’ 조성이 시급하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5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대사회 과학관은 과거 도서관,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과 같이 지역 필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이 없어 도민의 과학관 접

근성 측면에서 과학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국 8대 경제·생활권 중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강원 등 6곳은 국립과학관이 있는 반면 전북과 제주

는 아직 국립과학관이 설립되지 않았다. 국내 4곳의 광역연구개발특구 가운데 3곳은 지정 후 3년 이내 국립과학관이 들어섰으나 전북은 지정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전북은 독자적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인정받고 있고, 대전 다음 가장 많은 10개의 국가출연연구기관과 도단위 유일

연구개발특구라는 과학기술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과학문화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도 설립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4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에 전북자치도는 17개 시도 중 ‘교육/문화’ 분야 과학기술혁신 역량 1위를 차지했고 11개 특장분야에 특화된 국·공립과학관이 소재하고 있어 과학문화 생태계를 더욱 성장시킬 잠재력이 높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의 특성과 과학기술 지원 효율적 연계 위한 거점 국립과학관 조성 방향으로 차별화된 길

러콘텐츠 확보를 제시했다.

이어 거점 과학관으로 기존 소규모 과학관과 유기적 협력해 전북만의 과학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과학문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훈 박사는 “과학관은 과학적 교육, 문화, 관광이 결합된 지역 내 필수 문화공간이다”며 “정부는 광역경제생활권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거점 국립과학관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중국 외교 협력 강화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 관광 정책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가 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공무원들을 초청해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며 한중 간 지방외교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더불어 자매·우호 교류를 통해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모색했다.

이번 연수에는 장쑤성, 상하이시, 산둥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등 5개 지역의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들 지역은 전북자치도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곳으로, 이번 초청은 2010년부터 이어져온 전북

자치도의 대표 지방외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25일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과외교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관광정책과 주요 관광자원이 소개됐고, 중국 각 지역의 관광 전략도 공유되며 실질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화 체험도 이어졌다. 연수단은 전주 한옥마을, 남원 광한루원과 함파우 소리체험장, 순창 고추장 마을 등을 방문해 전북의 전통문화와 지역 자원을 직접 체험했다.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과의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충남, 해양정화선 공동운영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해상에 유입되는 육상 인입 해양폐기물(부유 쓰레기) 문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정화선 공동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에 나섰다.

그동안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일대는 금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 쓰레기가 집중호우 시 대량 유입되며, 해양오염은 물론 선박 통항 안전까지 위협 받아왔다.

지난해 7월에는 금강하구둑 주변 해역에만 900톤 이상의 해양폐기물이 몰린 것으로 추정돼 수거·처리에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된 바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정화선 ‘전북901호’를 활용해 군산 개야도 및 비응항 인근 해역까지 밀려온 부유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며 도계 해역 정비와 해양환경 개선에 힘쓰왔다.

전북자치도와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4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장마철 등 집

중호우 기간에는 광역 협업 없이는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화선 공동 활용 체계를 본격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력 체계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용 여장정화선 ‘전북901호’(171톤급)를 운영해 집중호우 시 금강하구 인근 도계 해역에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 수거를 전담한다.

수거된 폐기물은 충남도 소속 ‘늘푸른충남도’가 인근 충남 시군의 집하장으로 운반한다.

김병하 해양항만과장은 “해양쓰레기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광역적 재난에 가까운 사안”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충남도와 함께 장마철 해양폐기물 공동 수거·운반 체계를 구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수영장 25개소 전수검사 착수

전북자치도가 여름철 수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점검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공공실내수영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수영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감염병 사전 예방과 위생환경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검사 항목에는 잔류염소, 총대장균

군, 수소이온농도 등 법정 기준 9개 항목이 포함되며, 질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전정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공수영장의 수질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선제적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군산항·새만금항 신항 발전 전략 논의

전북자치도가 도내 항만 경쟁력 강화 위한 통합 해법 마련에서, 항만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군장신항만(주)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항만물류 연구·자문회’를 개최하고,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연계 발전 전략과 통합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을 ‘원포트(One-Port)’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후 열린

첫 공식 논의의 장으로, 항만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병수 회장은 통합 광역항만 명칭인 ‘새만금항’ 아래 두 항만의 상생·개발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과의 상생 전략을 구체화해 전북형 메가포트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건강한 여름나기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전북중기청,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 돌입

부담경감·크레딧·비즈카드 추진 연초부터 배달·택배비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내달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민이 기자

전주시-대구 달서구 탄소중립 실현 방안 머리 맞대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MOU 체결·공동 포럼 개최

전주시와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25일 전주시정연구원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업무 교류 협력(MOU) 체결식 및 기초지자체 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양 기관은 △연구과제 공동 참여(탄소중립 정책연구 및 기술 지원 등) △정보 공유 및 상호 참석(세미나, 워크숍 등) △기타 상호 협력 필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기초지자체 단위 탄소중립지원센터

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과 실천 경험을 상호 공유하기 위한 포럼도 진행됐다.

포럼은 △각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각 센터의 탄소중립 사업계획 발표 △참석자 간 탄소중립 방안 모색 및 협업 방안 논의 등으로 꾸며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주시에너지센터와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시자연생태관 등 전주시역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기관과 시설을 방문해 전주시 탄소중립 실천 현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승한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이번 공동 포럼은 지역 행동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업무 교류 협력 체결식 및 기초지자체 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라며 "향후 다양한 공동 사업과 교류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중동 진출 중소기업 선발·지원

사우디 3개 부처6개 정부 기관 민간 벤처캐피탈 등 참여 예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대리 문병준, 이하 주사우디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내달 7일부

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발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각됐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게 됐다.

그간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해 한국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후 참여를 설득했다.

그 결과 사우디 투자부가 정부 부처와 정부기관, 민간 벤처캐피탈과 함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우디에 진출할 중소

벤처기업을 직접 선발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AI, 바이오·헬스, 관광·엔터테인먼트, 스마트시티·건설 등 4개 분야이며, 총 2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AI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 분야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송민이 기자

전기안전공사, 보훈부 장관 표창 국가유공자 지원 인정받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4일 국가유공자 지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1,300가구 전기점검 등 지원 완주 유공자에 생필품 전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24일 국가유공자 지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2012년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국가유공자 약 1300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점검 및 노후설비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본사 소재지인 전북 완주군의 국가유공자 가

구를 방문해 6·25 당시 간호장교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집을 방문해 노후설비 개선 봉사를 진행하고,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에 이어 이번에 2번째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국가 유공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이 기자

전기안전공사 準 감사인 대회 ‘부패보다 예방’



공공기관 최초 도입 13년째 청렴·인권·안전 교육 진행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상임감사 허정환)은 25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전국 준 감사인(본사, 사업소)을 대상으로 'KESCO 준(準)감사인 대회'를 개최했다.

감사업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준 감사인 제도'는 각 부서 실무 전문가에게 감사 관련 업무를 맡기는 제도로, 평소에도 부서 내 감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적발보다 예방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1년 이 제도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우수 감

사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준 감사인 대회는 허정환 상임감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지난해 감사 성과 공유, 청렴·인권·안전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감사 중점사항을 발굴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뛰어난 활동을 펼친 준 감사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허 상임감사는 "감사실은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렴이 조직 발전의 주춧돌임을 잊지 말고, 생활 속 부패 근절 등에 준 감사인 여러분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는 25일 '전주 함께장터' 사업 일환으로 '전주시와 자생단체가 함께하는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전주시>

전주시, '전주 함께장터' 일환 장보기 행사

'자생단체와 함께 장보기' 시, 다양한 활성화 사업 추진

전주시는 25일 '전주 함께장터' 사업 일환으로 '전주시와 자생단체가 함께하는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윤동욱 전주 부시장,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전주시 공무원들이 참여해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지역 상인들과 소통했다.

시는 행사를 통해 '착한 소비' 실천과 전통시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공동체들과 협력해 다양한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매달 자생단체 회원 및 봉사단체 등과 함께하는 장보기 행사를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전주 함께장터를 통해 시민들의 따뜻한 소비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여름배추' 안정 생산 기술로 수급 뒷받침

토양병해 방제 시범사업 추진 병해충 예방 기술 보급 확대

농촌진흥청은 강원도 고령지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무 주산지에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 영농지도와 병해충 방제 등에 힘쓰며 안정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 조건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다. 여름배추는 강원 태백, 삼척, 정선, 영월, 강릉, 평강 등 해발고도 700~900미터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돼 주로 7~10월에 출하된다.

최근에는 고온과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상, 같은 지역에서의 이어짓기(연작), 병해충 증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품성 있는 여름배추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고랭지 배추밭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토양 병해충 '씨스트선충' 밀도 저감과 방제를 위해 올해부터 토양소독과 쪼갬기 작물 재배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약제 및 방제기구 사용료 등 방제비(24여 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반쪽시들음병' 방제를 위해 공적 방제 농가에 방제용 미생물제제를 6월 하순까지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

원, 여름배추 주산지 시군농업기술센터 공동 기술지원반과 함께 관내 배추 농가의 방제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반쪽시들음병', '무름병' 같은 병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맞춤형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관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여름배추 재배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토양 유실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에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여름배추 고온 피해 경감 기술 및 토양병해 방제 기술을 시범 보급했다. 배추에 물과 양분을 자동 공급하는 스마트 농업기술 '토양수분장력 센서'를 설치했으며, 햇빛을 반사하고 잡초 발생을 막아주는 양면 비닐(흑백 이중 멀칭 비닐)을 덮어 고온에도 뿌리 주변 온도를 낮출 수 있게 했다.

이주신기(정식) 전 재배지에 토양소독제와 미생물제를 투입해 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 환경으로 개선했다.

관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8월은 장마, 고온으로 배추 생육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여름배추 수확을 마칠 때까지 중앙-지방 기술지원단 합동으로 주산지 병해충 발생 및 생육 상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24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2025년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회장 진안농협 김문중 조합장)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규회원 가입 승인(변산농협, 고산농협)과 함께 2024년도 사업결산 및 2025년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임원선출 안건을 심의했

다. 그 결과, 현 회장과 부회장, 감사가 만장일치로 연임을 확정받았다.

김문중 협의회장(진안농협 조합장)은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 농산물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민이 기자

1분의 울림...솜품으로 학교폭력 멈춤 시도한다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솜품 시상식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환)은 지난 24일 익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 학교폭력예방 솜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공모전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짧은 영상(솜품)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도에는 총 1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금상은 초등부문 이리모현초등학교의 '말 한마디가', 중·고등부문은 이일여자중학교의 '꿈밖 학교생활'이 수상했다. 두 작품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폭력과 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익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 학교폭력예방 솜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익산교육지원청>

감동적으로 담아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일여자중학교는 전교생이 참여해 총 20편의 작품을 출품했고, 그 노

력을 인정받아 참가상을 수상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 솜품 제작 활동을 교육과정 속에 창의적으로 녹여낸 교육활동에 주목했으며 해당 학교에 학생 격려 차원에서 음료를 전달했다.

수상작들은 익산교육지원청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지원 누리집 '늘품우리' 등에 탑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성환 교육장은 “학생들의 언어로 표현된 솜품 영상이 또래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서 교육감, 오늘 10시 대법원 최종 선고

“어떤 판결에도 전북 교육계 크게 흔들릴 것”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대법원 최종 선고가 발표된다.

당초 지난달 15일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서 교육감 측이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이달로 연기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 학사 처리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했느냐'를 두고 지방선거에서 방송 토론화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파기환송 또는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재판 리스크가 해소되고 항우 재선을 도전할 수 있지만 사고가 기각되면 서 교육감은 즉시 직을 잃고, 이미 반환받은 선거보정금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전북 교육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차기 교육감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사들이 측각을 세우고 있다”며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전북 교육계는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지방공무원상담 지원제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방공무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개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해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상담내용은 과도한 업무수행 중 발생

하는 직무 스트레스, 상사·후배 등 구성원 간의 조직 내 관계 갈등,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문제 등 가족문제, 대인관계·개인성격 및 정서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또 사전예방 차원으로서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유형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개인상담의 경우 개인이 직접 상담 및 진료기관에 전화로 신청한 뒤 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서

나 기관에서 도교육청 총무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준다. 상담지원 횟수는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집단상담은 연간 4회까지 지원한다.

상담기관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기관 등 51개소, 진료기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등 32개소, 알코올 중독 예방 등 전문외부기관 4개소 등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상담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책자를 만들어 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

했다. 상담지원제도 내용,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쉽게 안내해 도움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공무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통해 안정적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해 나가고자 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을 함께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제27회 전국 고교생 문예 백일장’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문학에 관심 있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7회 전국 고교생 문예 백일장'을 개최한다.

이번 백일장은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주관으로 열리며, 오는 7월 31일(목)까지 응모작을 접수한다.

응모 부문은 운문부(시 3편)와 산문부(수필 1편)로, 주제는 자유다. 산문부 수필은 A4 용지 기준 2매 내외,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응모작품을 이메일(jinsook0815@nate.com)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학과공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우편 접수는 7월 31일까지 도착

분만 유효하며, 주소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학로 66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우편번호 27841)이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시상 내역은 △장원(운문부·산문부 각 1명, 상장 및 상금 50만 원) △차상(각 1명, 상장 및 상금 20만 원) △차하(각 2명, 상장 및 상금 10만 원) △장려상(각 10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2만 원) 등이다. 특히 장원 수상자가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할 경우 1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취임식 개최

윤미연 신임회장 선출
“활동지원단 상시 운영”

전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취임식이 25일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협)는 관내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임원진을 비롯해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 국주영은·이병철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학운협의 시작을 축하했다.

특히 지난 5월 전주시학운협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윤미연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활동



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협의회와의 전반적인 활동과 향후 계획을 위원장들과 꾸준히 공유하며 교육현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교육장은 “전주교육지원청은 언제나 학운협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학운협이 앞으로도 교육 발

전북대 김성찬 교수팀, 과기부 연구실지원사업 선정

3년 15억 지원로봇AI제어기술

전북대학교 김성찬(사진), 송현제, 이경수 교수 연구팀(컴퓨터인공지능학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 심화형 신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소규모 연구그룹을 지원해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형 R&D 사업이다.



상황 적응형 지능 제어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이 연구는 사람과 로봇이 실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협력하는 미래 지능형 시스템을 상정하고,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전하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피지컬 AI 제어 기술 개발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 환경에서 강화학습과 제어 이론을 통합한 고신뢰성 제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휴먼의 자연스러운 동작 생성과 협업형 로봇의 실시간 적응 행동 구현에 나선다.

김성찬 교수는 “디지털 휴먼의 정밀한 신체 모델과 로봇의 물리 제어 기술을 융합해 피지컬 AI의 실질적 구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스마트 제조, 재활 의료, 실감형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 가능한 지능형 휴먼-로봇 협업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특구재단 정희권 이사장, 군산대 현장 방문

군산강소특구서 추진 현황 보고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4일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 군산강소특구에서 육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단계 추진 계획에 대한 간단 회 및 새만금개발청 등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1단계 5년간의 육성지원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그동안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단계 육성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이사장은 국립군산대 새만금 캠퍼스와 새만금 1공구의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클러스터 조성' 성과로 시험 장비 및 입주 공간 구축 현황, 오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특화발전 분야인

'사용 후 배터리 융합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희권 이사장은 “군산강소특구는 어려운 산업기반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2단계 산업에서도 강소특구의 대표적인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군산상공회의소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맞이 정읍서 학술대회 성료

동학농민혁명 131주년을 맞아 정읍시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민중 항쟁의 전국적 확산과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시는 2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와 함께 동학농민혁명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과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동학 관련 단체와 유족, 연구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에 걸쳐 있었던 참여자의 활동을 여섯 가지 주제별표를 통해 심층 분석하며, 참여자 등록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지역별 봉기의 특성, 참여자 명예회복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 연대와 지역 특수성이 결합된 유례없는 민중운동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참여자에 대한 기록화와 명예회복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시는 향후 발표 내용을 단행본으로 정리해 발간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족 공감형 기념사업,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 희생과 헌신 기리며

군산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거행했다.

25일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군인,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영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기념사·회고사·격려사·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 순서에서는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받지 못한 유공자를 대신하여 유가족 3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는 감동적인 순간도 연출됐다. 이어 모범국가유공자 11명도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참전국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UN 참전국 국기를 게양했으며, 6·25 사진 전시전을 통해 전쟁의 고통과 슬픔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낸 참전용사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호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로운 세상, 희망의 군산을 만들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장마 대비 신청사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익산시는 25일 신청사 공사현장의 안전진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목분야 안전성, 침수 위험 지역의 관리 상태, 배수로 및 침사지 점검 결과 등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외곽 경계부 및 내부 경사면의 배수로 설치, 사면 전막 고정, 버팀대 공극부 뒷채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주요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시는 비상 당직 체계 유지와 수방자재 확보를 비롯해 인접 지반의 변형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상위단계 인증 획득

아동참여 확대 등 성과 인정

아동친화도시 익산시가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 정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한다. 익산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온전히 실현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된 자치단체를 말한다.

상위단계 인증은 기존 인증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에 주어진다. 유니세프가 제시한 6대 아동친화 영역과 5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과 운영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된다.

익산시는 2021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후, 아동 권리 증진을 시정 핵심과제로 삼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천에 집중해 왔다.



익산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익산시>

이를 위해 정책추진단 운영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서포터즈단 및 아동권리움부즈파스 등 민간 협력 기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건강체험관, 생태놀이터 등 아동 중심 공간을 확충하고 아동권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도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 정책의 구조적

내실화로 이어졌으며, 단순한 재인증을 넘어 상위단계 인증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번 상위단계 인증은 2029년 6월 19일까지로, 익산시는 아동정책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아동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어르신 위한 ‘친환경 발’…전기 셔틀버스

섬진강댐노인복지관에 전달

정읍시가 민관 협력으로 어르신들의 발이 될 전기 셔틀버스를 지원하며 교통복지 향상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섬진강댐노인복지관에 전기 셔틀버스를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함께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정읍·고창 지역 최민 부총재, K-water 나눔복지재단 박세훈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전달된 차량은 23인승 전기 셔틀버스로, 유류비 부담이 없고 유지비가 적어 실용성과 친환경성을 겸비했다. 특히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셔틀버스 구입에는 총 2억 900만 원이 투입됐다. 이 중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7800만원과 정읍시 보조금 6200만원, 복지관의 자부담 400만원, 그리고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의 후원금 6500만원이 더해져 예산이 마련됐

다.

후원금은 평소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던 라이온스협회가 정읍시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지원이 이뤄졌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사랑상품권 덕분에 소상공인 매출 늘었어요”

골목상권 활력 소상공인 웃음 지역경제 선순환 견인

군산시가 발행·운영 중인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첫 발행 이후 2025년 말까지 누적 발행금액이 총 2조 9.838억 원에 이르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 역의 유출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비가맹점 대비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품권이 소상공인 실질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상품권 누적 환적율도 매년 상승하여 '24년 기준 98.5%에 달해, 판매된 상품

권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단순한 구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사용처를 보면 음식점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료(11%), 교육(10%), 편의점·슈퍼마켓(9%), 의류·잡화(6%), 주유소(4%), 미용(3%), 카페·베이커리(3%), 자동차·자전거(3%), 가전(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생활 필수 영역에서 주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4년 상품권 QR결제로 소상공인이 절감한 카드 결제 수수료는 최소 4억 2,400만 원에서 최대 21억 2,2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

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군산시는 지난해 대비 925억 원이 증액된 총 4,12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5월 말 기준 상품권 판매액은 약 1,707억 원(연간 발행 목표의 41%)이 판매되었다.

여기에 상품권 결제 시 10% 추가 인센티브(캐시백)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군산시 강임준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 운영 및 가맹점 확대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전국 모범 사례 ‘우뚝’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평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익산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정책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2025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성과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번 수상으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

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건강증진사업의 탁월한 추진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성과평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전국 102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익산시는 8개 평가 항목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주민 주도의 성과발표회를 직접 기획·운영해 지역자원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이끌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실현 환경을 구축한 점이 긍정적

으로 평가됐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율과 센터 이용률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주민주도형 실천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5만여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건강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기부문화 확산 중심에 서다

전북 최초 ‘나눔 명예의 전당’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나눔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 예우와 나눔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익산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5일 시청 1층에서 사랑의열매 ‘나눔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열고,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한명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MG새마을금고중앙회 ESG경영본부 김병일 본부장, 원광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나눔 명예의 전당은 지역사회 발

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개인·기업 기부자를 기리는 공간으로, 현재 익산시에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2명과 나눔명문기업 1곳이 이름을 새겼다.

나눔명문기업은 3년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기업에 수여되는 명예로, 이날 원광새마을금고가 익산시 1호로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원광새마을금고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돼 왔다.

시는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하고, 기부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지역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의회,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2,189억 의결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24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고경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숫자가 답이다! 데이터로 완성하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 제안’을 통해 관광객 행태분석을 위한 관광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송기순 의원은 ‘종교인 순교 진실규명 그 이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른 추모와 정책 제안’을 통해 순교자들을 위한 근대화 역사기념관 건립 등을 제안했으며, 최재기 의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하수 악취 차단장치 확대 설치’를 촉구하며를 통해 악취 차단장치의 확대 및 관리 유지를 강조했다.

이어, 서항경 의원은 ‘경로당 급식도 우미 지원확대와 식사 돌봄 체계 강화’

를 제안하며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환경 조성을 건의했으며, 김석환 의원은 ‘전북 유일 ‘청년협회의 체’없는 정읍,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를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정읍을 위한 청년협회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안건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가결했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189억 6,394만 원을 확정 후 정례회를 끝마쳤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성산면 오성문화복지센터 등

군산시는 전북도에서 개최한 ‘제12회 전북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수상 등 2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영장에서 열린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주도의 자율적인 마을 개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고 마을의 자부심 고취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먼저 올해 ‘마을만들기’ 분야로 장려상을 수상한 우동마을은 ‘다시 보고 다시 찾는 오감만족 우동마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선보였다.

‘농촌만들기’ 분야로 우수상을 수상한 성산면 오성문화복지센터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준공된 주민들의 사랑방이다. 콘테스트에 참가한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도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민선8기 3주년 시정 성과운영 보고

정읍시는 민선8기 3주년을 계기로 시장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 24일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성과 및 운영계획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핵심성과를 점검하고 민선8기 후반기 시장운영의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형식적인 성과보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실행에 초점을 맞췄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읍

면동은 행정 최일선으로 주민 중심의 사고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소통·협업 밀도를 강화해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으로 행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부관아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동학유산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단 조성 집중 추진(미래산업과), 내장산·구절초정원 관광객 10~20% 증대 목표 설정 및 대응전략 마련(관광과) 등 민선8기 후반부 핵심과제를 부서별로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실행을 당부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김제시민제도’ 내달 본격 시행

시 공식 홈페이지서
7월 1일부터 발급
생활인구 유입·활력제고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나 시 공식 홈페이지(<https://www.gimje.go.kr/citizencard>)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디지털 시민증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2025년 관외자 1만 명 시민증 가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며, 이번 제도 시행으

로 관외 거주자도 김제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는 김제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김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거주형 생활인구 제도로, 디지털 시민증을 통해 관광지 할인, 지역 가맹점 혜택, 시정·문화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시는 대울캠핑장, 선암자연휴양림, 청하파크골프장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 시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할인가맹점 20개소 모집도 완료한 상태다.

앞으로도 가맹점 확대와 상권 연계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

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2024년 제정된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근거로 시행되며, 생활인구 개념을 제도화한 선도적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자, 출향인, 비거주 근로자, 자매결연 도시 시민 등 김제와 인연이 있는 다양한 계층을 생활인구로 포용하고, 이를 정착인구로 유도하는 장기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김제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는 별도 주소 이전 없이도 김제시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참여 모델”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김제를 경험하고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정

김태호·정동수·박경태
정다운·임하늘 선발

고창군이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거둔 직원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김태호 △정동수△박경태 △정다운 △임하늘 등 총 5명이 최종 선발됐다.

김태호 주무관은 농업 홍보뉴스 동영상 제작에 음면 마을회관 409개소 TV에 장착하고 수시로 홍보자료를 송출해 주민들의 농업 정책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정동수 주무관은 LH와 공사별 정산 과정에서 끈질긴 협상으로 요구

액에서 3억9100만원을 감액한 최종 협의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에 도움을 줬다.

성송면 박경태 팀장은 대상농협과의 협의를 이끌어 파크골프장 주차장 토지매입비용 3억원을 줄였다.

정다운 주무관은 군민이 직접 우수 공무원으로 추천했다.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시 각종 민원처리를 동시에 진행해 최대 17일이 소요되는 업무를 단 2일로 줄였다.

임하늘 주무관은 고창사랑상품권 20%특별할인 정책을 시행,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온 맘 챌린지’ 참여자 선착순 20명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보건소는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행복한 엄마되기 온 맘 챌린지’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2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도서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산부를 위한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챌린지 형식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진행된다.

△기본 육아교육, △초점책 만들기, △건강식, 이유식 만들기, △임산부 요가&명상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낮 시간대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 시간대에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보건소 모자보건팀 이메일(grm0556@korea.kr)접수 또는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및 자세한 양식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임산부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서울 중구, 친선결연 협약

행정·경제 등 상호 교류
공동 발전 방안 모색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길성 중구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 사회단체장,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두 도시의 공동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민간단체 간 화합과 친목을 위한 교류 활동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 시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공동



전북 부안군과 서울 중구가 양 도시 간 우호협력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부안군>

발전에 함께 힘을 모은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와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상생과 협력

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결연이 양 도시 모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이동 출입국 서비스 ‘호응’

외국인계절근로자
지문등록 등 대행서비스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지문등록 현장 대행 서비스를 2년 연속 운영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에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문등록 등을 해주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열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인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지문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청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들도 출입국사무소가 있는 전주까지 이동해야 했다.

고창군은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등록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으며, 농가도 “바쁜 농번기에 외출 없이 행정처리

를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지문등록 외에도 마약검사비 및 항공료, 산재보험료 일부, 무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농가의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농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 개최

정성주 시장 “참전유공자
희생 기억할 것”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5일 ‘영웅들이 지킨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회 김기중 김제시지회장,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김제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6.25전쟁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표창패 수여, 기념사, 6.25전쟁 회고사, 결의문 낭독, 6.25의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제시는 25일 ‘영웅들이 지킨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제시>

특히, 앙상블 ‘봄’의 기념 연주회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곡들이 연주돼,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정 시장은 기념사에서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6·25참전유공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지역특화형 비자 법무부 우수사례

지역우수인재 체류 1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4일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 간담회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의 기적, 김제의 부활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우수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법무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으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으로, 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2022년 11월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정착지원금 및 가족사 입차료 지원 등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왔다. 그 결과, 시는 지난 3월 기준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체류유형(F-2-R)으로 305명, 동반가족(F-1-R, F-3-1R) 체류유형으로 204명이 거주 중으로 모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외국인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지역소멸 위기와 더불어 산업현장 인력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로컬JOB센터, ‘농활원정대’ 운영

도농교류·지역 정착 유도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내 일손 부족 해소와 도시 청년층의 지역체험을 위해 ‘농활원정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활원정대’는 도시민,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창군 농가에 파견돼 일손 돕는 단기 농촌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단순 일자리 지원을 넘어 도농교류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고창군로컬JOB센터는 최근 2년동안 약1000여명의 대학 및 기관단체를

농활에 연계하며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했다.

올해 역시 농활원정대의 신청 및 운영 예정으로 농활원정대는 지난 23일부터 4박5일간의 전주대학교 200여명을 시작으로 경희대학교, 전북대학교, 가천대학교 등 전국 각지의 대학 및 기관 등 400여명의 농촌봉사활동을 연계한다

양치영 센터장은 “농활원정대를 운영해 농가와 봉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청년 제안·지역 응답 ‘부안 청년포럼’ 성료

부안군은 지난 6월 24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개최한 ‘2025 부안 청년포럼’이 청년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청년의 시선으로 정책을 뒤집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동영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장이 강연자로 나서 청년 인구 감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주민등록 기준 정주민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형 생활인구 중심의 정책 전환으로 새로운 관점의 지역인

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부는 청년 참여형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내가 살아온 부안의 점수는?’을 주제로 각 테이بل별 자유토론이 이뤄졌으며 부안에서 살아오며 느낀 장점과 아쉬운 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부안군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향후 청년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 변산면, 불법 현수막 정비 산뜻한 관광환경 조성

부안군 변산면이 최근 마무리된 대통령 선거 이후 관내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던 불법 현수막을 전면 정비하며 산뜻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정비 작업은 변산면사무소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협업해 진행한 것으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불법 선거 현수막과 낡은 광고물이 혼재돼 있어 보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던 만큼,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다. 정비 대상 구역은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풍경을 마련해 변산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층 더 좋은 인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우 변산면장은 “이번 정비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청정 변산’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의회, “통합은 없다” 전원 삭발

김관영지사 방문 맞춰 감행 “군민 뜻 의면 정치 폭주” 규탄 “여론조사강행 선거 중립 위반”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가 25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맞춰 의원 10명이 삭발을 감행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의회 방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군의회의 강경한 반발로 군의회 방문을 취소했다.

앞서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은 군민 반발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군청 앞에서 군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방문이 좌절됐으며, 올해 3월 13일 예정된 일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정치적 민감

이슈 등 이유로 연기했다.

삭발 직후 유익식 의장은 “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통합 추진은 정치 폭주”이며, 그 정점에 김관영 도지사가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보여줬다. 우리는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통합은 없다!”고 강하게 외쳤다.

군의원들은 “지금 전국은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전북도는 낡은 정치 실험에 몰두하며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완주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지난 5월 29일,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시점에 전북도가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정치농단”이라며, “여론을 교묘히 조작하려 했던 김관영 도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유익식 의장은 “만에 하나 군민 동의 없이 통합이 강행된다면, 완주군의회는 의원 전원 불출마라는 정치적 책임으로 맞설 것”이라며, “김관영 도지사와 우병기 전주시장 역시 통합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공약으로 촉발된 통합논의가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됐다는 거짓을 일삼는 김관영 도지사에게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향후 군민과 함께 하는 공개 토론회, 대군민 결의대회,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합 저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대만 교육관계자 관광 팸투어 진행

대만 난터후현 학교장 등 24명 광한루원 중심 남원 문화답사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지난 24일 대만 난터후현 초중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 팸투어를 진행했다.

대만 교육관계자 총 24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대만 청소년 방문교류 및 방한교육 여행단 유치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와 인근 시군(전주, 순창)이 연계해 마련됐다. 그간 대만 청소년들의 전북 방문은 있었지만 이번이 최초로 남원 코스를 추가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5월 대

만에서 열린 한국 여행 엑스포 기간 중 난터후현 교육청을 방문해 남원시의 여행 코스와 문화체험을 소개한 바 있으며, 이번 팸투어로 이어지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남원시 방문단은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김병중 미술관, 달빛정원, 오천 분수 야경 투어 등 관광자원을 답사하고, 남원 농악공연 관람 및 장구 체험, 화인당 한복 인형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첫 방문지인 남원시 관광 자원에 큰 호응을 보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청소년 문화교류로 시작해 남원 전역의 전해 자원을 국내외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 거행

참전유공자 100여 명 참석 4인 유공자 표창 수여

순창군은 25일 순창읍 장미가든에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며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기념식은 6·25 참전유공자회 순창군지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참전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 선언과, 애국가 제창, 묵념에 이어, 4명의 유공자에 대한 표

창 수여와 대화사, 기념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제 후손들인 우리의 책무”라며 “참전유공자 여러분들의 희생에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작년부터 도내 최고 수준인 월 15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신축 공사도 6월 착공해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공익활동 어르신 1,000명 안전교육

악물 복용·폭염 행동 요령 등 다뤄

완주시니어클럽(관장 김대권)이 읍·면 노인공익활동 참여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을 2주에 걸쳐 마무리했다.

지난 24일까지 약 1,000명의 어르신이 교육을 받았다.

김대권 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올해 부식비 상향 조정 지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가정과 영농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 영농 참여와 농업인들 유대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40일 기준의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해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부식비 상향 조정을 통해 양질의 급식을 지원해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첫째 11개 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누적 299개 마을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2개 마을 102백 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마을당 320만 원씩 지원해 추진중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시청서 발달장애인 보석 십자수 전시회 개최

(유)남원아동발달센터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적 감성과 꾸준한 노력이 담긴 ‘보석 십자수 전시회’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남원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18명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완성한 보석 십자수, 유화, 압화공예 등 총 30~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참여자들은 창작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직접 만든 작품 전시를 통해 자부심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회는 발달장애인들이 남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활동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들은 작품을 감상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올해의 책 연계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이 ‘2025 완주군 올해의 책’을 연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완주군 올해의 책’은 한 권의 책을 매개로 주민 모두가 소통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적 책임기 사업이다.

군은 지난 2월 ‘2025 완주군 올해의 책’으로 △여린이 부문 우신영 작가의 〈언제나 다정 죽집〉 △청소년 부문 김종원 작가의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성인 부문 권여름 작가의 〈작은 빛을 따라서〉 총 3권을 선정했다.

이에 군은 분야별로 연계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5월과 6월에는 권여름, 우신영 작가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8월 31일까지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언제나 다정 죽집〉과 연계해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손편지’ 프로그램과 청소년·성인 대상으로는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과 연계해 ‘필사 챌린지’를 연다.

하반기에는 ‘올해의 책 읽는 우리가족 읽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 ‘독후감 공모전’과 10월 18일 제12회 북적북적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은희 완주군도서관사업소장은 “한 권의 책을 매개로 군민들이 세대를 넘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서가 생활이 되는 문화도시 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도서관 홈페이지나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군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제산업국장을 중심으로 사용자 측 위원 5명과 근로자 대표인 공무원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근로자 측 위원 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2분기 현업사업장 안전과 보건 분야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했고, 순창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안전과 작년 산업재해를 통계·발생 현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안동용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무재해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 동계면 ‘주민 숙원’ 문화체육센터 준공

지상 2층 연면적 1,896㎡ 규모 70억 투입 문화·체육 복합공간

순창군 동계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계면 문화체육센터가 마침내 완공됐다.

지난 25일, 동계면 현로리 520번지 일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군의회 의장,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이 함께해 새로운 지역 거점 공간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내부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동계면 문화체육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염원의 결실로, 체육 시설과 문화 공간이 부족했던 동계면에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순창 동계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계면 문화체육센터가 완공해 25일 준공식을 열었다. <사진=순창군>

2020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70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시설은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896.16㎡)로 건립됐다.

시설은 실내 다목적 체육관(732.8㎡)을 비롯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218.45㎡), 생활문화센터(375.28㎡), 공용공간(569.63㎡) 등으로 구성돼 있다. 49면의

주차장도 함께 조성돼 방문객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군수는 기념사에서 “앞으로 이곳이 건강한 여가 생활과 문화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협약 체결

산모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공공母子 건강돌봄체계 완성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남원의료원과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협약’을 2025년 6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2029년까지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심리적 안정, 영양지원 및 육아

정보 제공 등 산모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 10월 개원 예정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북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남원시 고죽동 200-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되며, 모자동실 13실, 신생아실, 사전관찰실, 맘카페, 프로그램실, 식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돌봄 인프라 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

다. 이에 남원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심으로 인근 분만 산부인과,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을 통해 임신·출산·산후조리·영유아 진료까지 이어지는 공공 모자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한다.

또한, 남원시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조리원 입소 전후 연속성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신생아 및 영유아 진료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건강생활지원센터 ‘전국 1위’ 선정

보건복지부 주관 성과평가 102곳 중 최고 점수 ‘대상’

행복완주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기관(대상)으로 선정됐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02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의 실효성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주민 참여도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군은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운영 역량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그동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개인 맞춤형 운동 지도, 영양·식생활 교육, 취약계층 건강관리



행복완주건강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완주군>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감기질환 환경 조성, 건강지도자 양성, 건강동아리 운영 등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완주=김명곤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 익산 미등록 경로당 지원금 기탁

익산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총재 정기정)'가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여름철 폭염과 호우로부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정기정 총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전국대회 4체급 석권

김찬영 등 총 5명 입상

제79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정읍의 체육 위상을 드높였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제천시 씨름협회가 주관했다. 전국 132개 팀,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뉘어 개인전과 단체전이 펼쳐졌다.

이 가운데 단풍미인씨름단은 개

인전 4체급에서 우승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사급 김찬영 △역사급 정상호 △용사급 김효겸 △용장급 이민호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고 △정장급 김지후 선수도 3위를 기록하며 총 5명이 입상했다.

박희연 단풍미인씨름단 감독은 "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린 결과를 전국 무대에서 입증해 매우 기쁘다"며 "항상 큰 힘이 되어주는 이학수 시장님과 정읍시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제79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정읍의 체육 위상을 드높였다 <사진=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군산 대야남초, 공공자전거 운영수익금 기부

대야면행정복지센터는 대야남초등학교(교장 홍성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운영수익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기탁식에서 대야남초등학교는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수익금 현금 20만 2,000원과 학생자치위원회가 후원한 52만 5,000원 상당의 성품(감자 10박스, 화장지 30롤 10팩, 백미 10kg 8포)까지 총 72만 7,000원을 기탁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새만금세빛발전소, 군산시 취약계층에 3,000만 원 기탁

지역사회 나눔 실천

㈜새만금세빛발전소(대표 이진규)가 군산시 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000만 원을 25일 지정 기탁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실천했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에 자리한 100MW급 태양광 발전사업장으로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 환원 사업의 하나이다.

미성동은 전달된 성금을 협의체

가 추진 중인 자체 특화사업에 활용하고, 지역 내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진규 대표는 "우리 회사가 번 이익을 주변 지역민을 위해 돌려드리고, 어려운 이웃의 적극적인 돌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 변산면새마을부녀회, 자녀들과 함께 100만 원 기부

부안군은 지난 23일 부안군 새마을지회 연석회의에서 변산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갑숙)가 회원들과 함께 총 1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특히 부녀회원들이 각자의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직접 독려해 이끌어낸 것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인 '자발적인 외부 참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갑숙 회장은 "작은 정성이라도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나서 주셨고, 자녀들도 기꺼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뜻깊었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 자율방범연합대, 박옥규 신임 대장 취임

완주군 자율방범연합대가 완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범죄예방경의 대회 및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자율방범 활동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이완군 전임 대장의 이임식과 박옥규 신임 대장의 취임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어진 결의대회에서는 △주민

과의 소통 강화 △순찰 활동 확대 △범죄 예방 교육 확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활동 계획이 발표됐다. 대원들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옥규 연합대장은 "자율방범연합대는 주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완주=김영근 기자

데이뷰의원 전주점, 청소년 문신 제거 지원

전주시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5일 데이뷰의원 전주점(대표원장 박만우)과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신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통해 문신 제거 시술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뷰의원 전주점은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청소년안전망

진안사랑여성회, 지역 학생 위한 장학금 100만 원 기탁

진안사랑여성회(회장 최미자)가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서 최미자 회장은 "진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사업기금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들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정말로 감사드린다. 주신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진안발전을 이끌 인재 육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금만건축사사무소,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서주)는 금만건축사사무소 이연지(대표 류충렬)가 지난 23일, 시 드림스타트 이용 대상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류충렬 대표는 "작지만 따뜻한 나눔이 아동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만건축사사무소는 해마다 김제시 드림스타트에 200만원씩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음식은 꼭 익혀드세요	물도 급격적이면 끓여먹어요	세척 및 소독하기	구분해서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2 육류 중심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로 1도 이상 익혀 드세요.	3 물은 100도 이상으로 끓여서 먹도록 해요.	4 식재료와 조리도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햇빛에 꼭 소독해주세요.	5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6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18도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一事一言〉



주목되는 실용외교의 진화 ‘사령탑 역량’이 관건 (3)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2국가(2 state)라는 현실 인정과 민족 내부적으로 통일(1 state) 지향성 유지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국가성(statehood)’ 개념을 적용한 제3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공약은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는 한반도 평화 구조 구축 프로세스 병행 추구’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구조 프로세스를 추구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한반도 평화구조의 구축을 진행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아닌 ‘한반도 평화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peace regime)가 정전체제의 법적 종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비해, 평화구조(peace architecture)는 동서유럽 간의 유럽안보협력기구(CSCE→OSCE)와 같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통해 적대관계를 지양하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장치가 평화협정이라면, 한반도 평화구조의 법적 장치는 ‘남북기본협정’(가칭)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남북관계는 상대제체 부정(남북한 헌법)→정치실체 인정(7.4공동성명)→특수관계 인정(남북기본합의서)으로 발전해 왔으나, 남

북대화조차 중단된 가운데 북한의 2국가관계 주장까지 겹쳐 경색된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재규정하고 한반도 평화구조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구조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주변 4개국의 교차승인을 완성해 동북아 국제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1990), 중국(1992)과 수교한 데 비해, 북한은 아직도 미국, 일본과 미수교 상태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1국가 지향의 특수관계론을 내세워 사실상 북·미, 북·일 수교를 반대해 왔으나, 남북한 2국가성을 인정하게 되면 국내적으로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으로 북·미, 북·일 수교에 반대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 주목할 공약은 북핵 대화의 여건 조성 및 북·미 협상을 촉진하며, 남북대화과 북·미 협상을 병행한다고 내건 것이다. 이는 북핵 해결의 한국 주도성 강화를 내건 2022년 대선 공약을 현실화한 것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북·미 협상상 추진에 따른 ‘한국패싱’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한미 사전협의체를 운영하고, 북·미 핵협상이 남북대화과 이어지도록 한미간에 조율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제안해 올 경우에는 한·미, 한·미·일의 투트랙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진 까닭에 외교, 국방, 대북 공약이 주요 선거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TV토론도 정책보다는 대통령 후보의 인성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고, 각 당의 공약집도 역대 가장 낮은 사전선거일에 임박해서 나왔다. 대선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서 대선공약을 국정 목표와 전략으로 제대로 정립해 내야 한다.

과거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위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 아래,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개 전략과제에 따라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에 각각 5개의 국정과제씩 부여했다.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곧 출범할 국정기획위를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부처별 국정과제를 도출해 낼 것이다.

국내외 정세를 올바르게 반영한 국정과제의 도출은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외교, 국방, 대북 분야의 사령탑 인선이다. 국방부 장관에 민간 전문가를 앉혀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것은 내란극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정책부처인 통일부의 장관도 큰 변수는 못된다. 관건은 외교와 대북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전 의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각각 임명, 내정했다. 이러한 인선을 두고 일부 언론은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에는 동맹파, 대북정책 사령탑인 국가정보원에는 자주파를 기용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따른 균형 인선이지, 노무현 정부 당시의 동맹파-자주파 논쟁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정할 때 대선 공약 중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빠졌거나 부족한 점은 추가해야 한다. 과제의 추진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아야 한다. 또한 국정과제들을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내외 정세에 맞춰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국내외 엄중한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완수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며,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출향 인사가 성사시킨 남원산 햇양파 수출

남원에서 생산된 햇양파가 다시 대만 수출길에 올랐다. 이는 지역 농가의 숨통을 틔우고 전북 농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재확인한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이번 수출은 남원출신 출향인사 가족인 경북통상(주) 김병우 부장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 판로를 개척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역에 뿌리를 둔 출향인사가 외지에서 쌓은 전문성과 인맥을 고향을 위해 기여에 사용한 이번 사례는, 향후 전북 농산물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훌륭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남원시는 최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 햇양파 대만 첫 수출 선적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했다. 총 240톤 규모의 양파가 7월 초까지 10차레에 걸쳐 대만으로 수출될 예정인데, 총수출액은 1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중단되었던 수출이 2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중·조생종 양파 출하가 물리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원시는 1천톤 규모의 추가 수출도 준비 중이다. 이에 지속적 수출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수출전용 생산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판촉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더욱이 수출품목이 양파에만 그치지 않고 사과, 배, 복숭아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출향인사의 역할이다. 고향을 떠나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북출신 출향인사들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풍부

한 경험과 인맥을 쌓고 있다. 이들 가운데 유통, 무역, 외식, 물류,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역량은 지역 농산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지자체와 농협 등 관련 기관이 이들 출향인사와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판로 개척에 나선다면, 수출 성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원의 햇양파 대만 수출 재개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는 전북의 농산물이 품질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자신감이며, 그 가능성을 열어줄 열쇠가 바로 ‘사람’ 즉, 지역과 연결된 출향 인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K-콘텐츠 붐을 타고 한류가 문화 전반을 넘어 식문화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김치 등 전통식품뿐 아니라,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발맞춰 전북도는 보다 전략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해외 트렌드에 적합한 품종 개발, 글로벌 유통망 확보, 브랜드 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전북의 농산물 수출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남원의 햇양파 사례는 지역 농업의 희망을 다시금 일깨우는 신호탄이다. 앞으로도 출향 인사들의 애환심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북의 더 많은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제 전북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농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문화재열전



신경준의 고지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과학기술, 지리
-지정일- 1979년 12월 27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순창군 남산길 32-3

▲오늘의시

소나기 / 박재구

저물 무렵 소나기를 만난 사람들은 알지	그때 쏟아지는 소나기를 바라본 사람들은 알지	분노라는 것을 그 소나기에 가슴을 적신 사람이라면 알지
누군가가 고즈넉이 그리워하며 미루나무 아래 앉아 다리뼘을 하다가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든 걱정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를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든	자신을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또한 얼마나 쓸쓸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	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아’,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	화집 ‘아기 참새 찌꾸’ 등을 냈다. 1992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인) 549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연주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는 독자 여러분을 대변 해 드립니다

N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사람·기업·미래가 모인 도시, 고창 심덕섭호 3년,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 열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을 슬로건으로 힘차게 시작했던 심덕섭호가 출범 3년을 맞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특유의 글로벌마인드와 도전 정신으로 세계유산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집자주

[변화]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다

전북 서남쪽 끝에 자리잡은 고창군의 경제 지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 직후 신활력 산업단지로 과감한 명칭 변경이후 최첨단 산업으로의 청사진을 그리며 국내 우량기업들을 무한 흡입하고 있다.

△전북 첫 삼성전자 입주 및 유망기업 유치

세계초일류 기업 삼성전자가 고창에 들어온다.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올 하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주)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18만1625㎡

(축구장 25개 규모)를 매입해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삼성전자 유치는 고창 뿐만 아닌 도민 모두의 숙원사업이었다. 때문에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관련부서의 열정과 노력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또한, 전력반도체 소재 등을 생산하는 (주)지텍 역시 본격적인 사업착공을 준비중이고, 고수면 옛 고추종합유통센터 건물을 활용하는 에스비푸드 역시 내부 설치구축과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연말쯤에는 매년 고창 고구마 800톤과 쌀 1000톤 이상을

전북 최초 ‘삼성전자’ 착공 농촌 일손부족 해결 1천만 관광객시대 개막

구매해 올리고당 제품 생산하게 된다.

△국가기관 속속 입주채비(호남 드론통합지원센터·고창갯벌세계유산지역센터)

드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지난 1월8일 착공이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이 속속 준비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관리를 맡게 될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75억원을 투입해 약2만7000평 규모로 건립되며, 비행시험을 비롯해 드론자격과 드론교육을 진행하는 통합지원센터와 활주로 4면을 갖춘 실기시험장이 들어서게 된다.

예상되는 연간 교육 인원이 1천명, 자격시험 인원 1만5천명으로 향후 지역경

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만돌곶곶에 있는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유산지역센터는 갯벌의 보전과 모니터링 등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생태관광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전국 1위 “농촌일손부족 덜었다”

심덕섭 고창군정 3년 만에 고창 농촌 현장에서 일손부족으로 애태우는 농가가 확 줄었다. 올해 고창군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무려 26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1800명에서 대폭 늘어났고, 전국에서도 가장 많다. 특히 전국 최초로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를 설립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작년 무단입탈이 1%대로 대폭 감소했다. 군 행

정도 ‘전국 최대규모’ 외국인계절근로자 선도지역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중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상황에 정통한 계절근로자 전문관을 최대 6명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일 2농가 방문 △인권지킴이 △365통역제도 등을 확대 운영해 농가와 근로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 대성공 1천만 관광객시대 개막!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선포하고 연중 꿰이지 않는 축제로 전세계 방문객을 끌어들이면서 꿈의 1천만 관광객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주요 관광지인 음식점, 숙박업소,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몰리며 고창군에 활력이 넘쳤다.

특히 올해 청보리밭축제는 51만명이 방문하며 말 그대로 대박을 냈다. 주요 흥행요인으로는 드라마와 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고, 심

덕섭 군수도 축제 23일간 신문과 방송, 라디오에서 고창 축제장 현장과 서울 스튜디오를 가리지 않고 출연해 축제홍보에 총력을 펼쳤다.

△어르신 3대 보건의료사업 완벽 정착

민선 8기 고창군 노인건강 프로그램의 핵심 ‘우리마을주치의의사제’, 마을주치의의사제는 공중보건의사와 방문보건 전문인력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기초건강검진, 건강상담, 대상자별 통합보건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감기나 소화불량 등으로 보건소 진료를 볼 때 진료비가 무료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 임플란트·틀니지원사업’도 시행됐다. 이에 더해 작년부턴 ‘50세 이상 고창군민 대상포진 무료접종 시행’, ‘최신식 디지털 방사선 골밀도 검사기 도입’ 등 심덕섭표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에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